“김천 수도암비, 신라 명필 김생 작품”

박홍국 관장, 2차 비문 판독서 ‘김생서’ 확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김천 청암사 수도암의 ‘도선국사비’가 신라 명필 김생이 원화3년(서기 808년)에 썼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불교고고학자 박홍국 위덕대 박물관장은 “김천 수도암비를 조사한 결과 기존에 읽은 22자 외에 김생서(金生書) · 원화삼년(元和三年) ·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 등 21자를 더 판독했다”고 6월 4일 밝혔다. 조사에는 박방룡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이영호 경북대 교수가 함께 참여했다.

화강암으로 만든 비석은 수도암 약광전 앞에 있으며, 크기는 높이 177㎝ · 너비 60~61㎝ · 두께 42~44㎝다. 일제강점기에 새긴 것으로 추정되는 ‘창주도선국사’라는 글자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본래 세로 길이 4~5.5㎝인 글자를 8행에 26자씩 새겼다.

박 관장은 “비석 끝부분 8행에서 흐릿하지만 조금 작게 새긴 ‘김생서’ 세 자를 찾았다”며 “ ‘원화삼년’이라는 연호는 6행 중간에 있었다. 후대에 판 도(道)자에 의해 원(元)자가 가로로 절단됐으나 일부획이 남아 판독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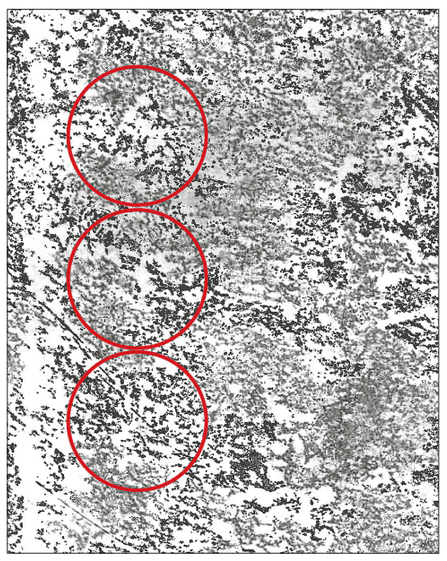
이어 “비석 조성의 목적은 박방룡 원장이 ‘비로자나불’을 판독해 가능했다”며 “수도암비는 신라 말기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보물 제307호 청암사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조성 연대를 알려주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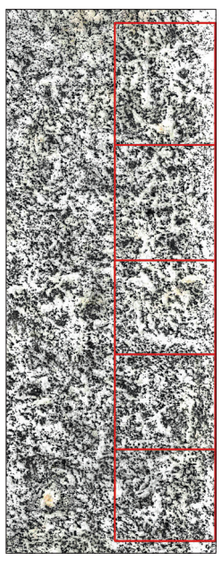
그러면서 박 관장은 수도암비를 ‘김생서 수도암 비로자나불 조성비’로 부를 것을 제안하며 “앞으로 불교 용어와 고자(古字)에 밝은 연구자들이 모여 판독하면 15~25글자를 더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로자나불’ 등 21자 추가로
수도암 비로자나불 연대 확인
비문도 불상 조성 관련일 듯
“김생 생몰연대 수정도 필요”



김천 청암사 수도암의 도선국사비. 비문 판독 결과 신라 명필 김생의 글씨임이 확인됐다.
제공= 오세윤 작가





탁본 조사를 통해 수도암 비문에서 김생서(金生書) · 원화삼년(元和三年) ·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 등 21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사진 왼쪽 붉은 선 부분이 ‘김생서’로 판독된 모습. 사진 오른쪽의 붉은 선 부분이 ‘비로자나불’로 판독된 것이다.

이와 함께 박 관장은 〈삼국사기〉에 나타난 김생의 생몰연대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실제 〈삼국사기〉에 따르면 김생은 경운 2년(711)년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어려서부터 글씨를 잘 썼고, 예서와 행서가 모두 입신(入神)의 경지에 이르렀다. 숭녕 연간에 고려 사신이 김생의 행초를 송나라 관리에게 보여줬더니 중국 최고 명필인 왕희지(王羲之)의 작품으로 오인했다는 일화도 있다.

〈삼국사기〉에 나타난 김생의 출생년도는 711년으로 수도암 제작 시기인 808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신라의 명필로 이름이 높았던 김생이 활발하게 활동했을 시기로 추정되는 741~791년 사이 그의 진적 비문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의문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관장은 “〈삼국사기〉 열전 중 출생연도가 확인되는 사람은 김유신과 김생뿐”이라며 “김부식과 편찬학자들이 김생 출생 연도의 전거로 삼았던 원전이 정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문의 필체를 근거로 김천 갈항사지 동탑 상층 기단 명문, 산청 단속사 신행선사비 글씨도 김생 친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호 교수는 “이제 김생 글씨는 집자비인 태자사비가 아니라 김생 진적이 확실시되는 수도암비를 기준으로 연구해야 한다”며 “수도암비 보존 방안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단은 수도암비 추가 판독 결과를 정리한 연구 논문을 신라사학회가 펴내는 학술지 〈신라사학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대웅전 기둥 아래서 옛 ‘곡자’ 발견

안성 청룡사 보수 중 확인
대웅전 기본 길이와 일치
전통건축 연구 중요 자료

보물 제824호 안성 청룡사 대웅전 해체 보수 과정에서 오래 전 사용됐던 목재 곡자가 발견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안성 청룡사 해체 보수 과정에서 최근 ‘목재 곡자’가 발견됐다”고 6월 5일 밝혔다.

목재 곡자는 ‘ㄱ’자 형태의 자로, 장변 43㎝ · 단변 31.3㎝ · 두께 2㎝의 크기다. 곡자는 전통건축에 쓰인 목재와 석재 길이를 측정하거나, 집 전체의 크기와 비례, 치목(治木, 나무를 깎는 일)과 치석(治石, 돌 다듬는 일)에 필요한 기준선을 부여할 때 사용한다.

발견된 곡자는 목조건축물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중 하나인 대웅전 뒤쪽 기둥 하부와 초석 사이에서 나왔다. 대웅전 상량문 기록 등을 토대로 볼 때, 1863년(철종 14년) 대웅전 수리공사 당시 기둥의 해체보수 작업 과정에서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 당시 목재 곡자의 모습. 안성 청룡사 대웅전 해체 보수 중 발견됐다.

발견된 곡자는 단변을 10치로 나누어 세부 단위를 ‘일(一)’부터 ‘십(十)’까지 표기하였다. 특히, ‘일(一)’에서 ‘삼(三)’까지는 다시 한 치당 10등분을 해 측정의 정밀도를 높였다. 또한, 용척에 대해 1차 분석한 결과, 한 자가 313㎜ 내외로, 대웅전의 용척과 정확히 일치했다.

문화재청은 “해당 곡자는 후대 사람들이 건물을 보수할 때 사용된 치수 단위를 알 수 있도록 한 옛 목수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면서 “313㎜ 기준은 조선 세종대 도량형 통일(1446년)에 따른 영조척과 거의 유사하며, 18세기 후대까지 사용된 기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곡자는 당대에 건물을 짓거나 수리할 때 사용한 척도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목재 곡자는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한 보존 처리가 진행됐으며, 정밀한 연구를 위해 파주 전통건축부재센터로 이관한 상태다. 향후 △정밀실측 조사 △재료(수종) 분석 △엑스레이(X-ray) 촬영 △CT(컴퓨터단층) 촬영 등을 추가로 진행해 전통건축 분야의 연구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안성 청룡사 대웅전은 주요 부재의 노후화로 인한 건물 전체 변형이 심해 해체 ·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2016년 6월부터 해체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희소 묘법연화경 등 울산시 문화재 된다

울산시 5일 지정예고… 청룡암 소장 경전

조계종 청룡암 소장 조선시대 경전들이 시문화재자료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조계종 청룡암(주지 종선) 소장 〈묘법연화경〉 권1과 〈선원제전집도서〉를 울산시 문화재자료로 지정예고했다”고 6월 5일 밝혔다.

〈묘법연화경〉 권1은 1책으로, 표지에 묵서(墨書)로 법화경(法華經)으로 표제(標題)를 쓰고 아래에 ‘원(元)’을 적었다. 권말 기록을 통해 1572년 경상도 상주 대승사에서 간행했음이 확인됐다.

본문의 서체는 조선 초기 명필인 성달생 서체계통의 판본이며, 본서와 동일한 대승사 간행본은 현재 고려대 만송문고와 동국대 도서관 2곳에만 소장돼 있다.

울산시 문화재위원회는 “임진왜란 이전의 판본으로 귀중본에 해당하며, 현존하는 판본이 희소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선원제전집도서’는 권말에 ‘1635년’이라는 명확한 간행 기록과 연화질(綠化秩) 및 시주질(施主秩)이 수록돼 있고, 인출 및 보관상태도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청룡암 소장 〈묘법연화경〉

임진왜란 이후인 1635년에 간행됐지만 후에 간행된 1681년 운흥사판(雲興寺版)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한 선례가 있어 보존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편, 울산시는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 자료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보광사 성보문화재 모든 것을 망라하다

주목! 학술서

〈속초 보광사의 문화유산〉

속초 대표 사찰 보광사 소재 성보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술서가 발간됐다.

중앙승가대 교수 정각 스님(고양 원각사 주지),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등은 지난달 고성 화재 속에서도 성보문화재를 지킨 속초 보광사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들을 연구해 책으로 묶었다.

보광사는 영랑호 인근에 위치한 조계종 제3교구 신흥사의 말사다. 1623년 광명당 등휘가 안양암을 창건한 후 폭우로 유실되자, 속초의 옛 절터로 이건해 보광사로 사명을 개칭했다.

〈속초 보광사의 문화유산〉은 총3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보광사에 봉안된 목조지장보살좌상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담았다. 목조지장보살좌상을 조각한 조각승 초안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재질과 연륜연대분석 △복장 전적 △복장 직물 △해당 시대의 정토 · 지장신앙 △보살상 발원자 연구 등이 다뤄지고 있다. 특히 목조지장보살좌상의 발원자로 확인된 한씨 부인이 남편 승록대부 나업의 명복을 기원하며 보살상을 조성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승록대부 나업은 왕의 시중을 들었던 내관이었고 그가 죽자 부인 한씨가 남편을 기리며 불상을 조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발원자를 연구한 권순삼 은평향토사학회 연구위원은 “내관은 왕의 최측근 세력으로서 궁궐문화를 전수 · 보존하고 왕도정치 구현에 일조했던 전문직업인”이라며 “전문직업인의 면모를 조선시대 내관에서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일”이라고 강조했다.

2장은 보광사의 문화유산 전반을 다뤘다. 3장은 보광사에 남아 있는 문헌과 불상 발원문 및 화기 등이 수록됐다. 신성민 기자





